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4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 정책과	담당 자 • 공공의료팀장 김현수 ☎440-2751 • 담당자 박미란 ☎440-275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임박 인천시, 막판 준비에 총력

-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재정 지원책 마련 -
- 대면평가 후 2파전으로 압축... 2월 현장평가 후 3월 최종 결정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공모전에 참여한 4개 지역(인천·서울·경기·강원)의 의료기관 중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두 지역이 1차 관문인 대면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 달 중 2차 관문인 현장평가를 실시 한 후 3월 중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대면 평가를 통과한 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부지 적절성 ▲모 병원과의 연계성 ▲기존 음압병상 시설 및 운영의 우수성 등을 평가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성모병원과 함께 마지막 관문인 현장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인천성모병원 내 신축 될 감염병전문병동의 입지적인 장점, 모 병원과 최단 거리로 인접하게 건립함으로써 신속한 공동 대응 및 연계구축 등의 강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 발생 시 국내 최대 규모의 가톨릭중앙의료원 네트워크(8개 성모병원)를 활용해 감염분야 의료인력(2,774명)을 원활하게 확보·대응 및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환자이송체계\* 재정부 ▲취약지 감염병 응급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성 ▲민간의료기관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은 물론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인천성모병원과 TF 구성과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닥터헬기(이동형 음압) 및 닥터카(이동형 음압), 병원선(음압시설 예정), 음압구급차 확대 등

3백만 인천시민과 국회의원, 시의원,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공항과 항만이 존재하는 관문도시 인천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구축돼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병원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하루 빨리 감염병 전문병원이 선정되어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하5층~지상8층, 연면적 108,154㎡, 102병실\* 규모의 독립적 감염병동을 인천성모병원 내에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감염병 수문장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 음압병실 30, 음압중환자실6, 일반중환자실6, 일반병실60, 음압수술실6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 인천성모병원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총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염병 유입 차단의 최일선인 인천지역에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